광주 6개 권역별 문화환경 조성
전남 해양·생태관광 중심 육성

■문광부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민간자본 확보 여부가 성패 관건

14일 확정된 문화관광부의 시·도별 관광개발계획에는 광주·전남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이 대부분 반영돼 지역문화관광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시·도별 관광개발계획은 지역에서 추진할 개발사업 등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며 세부 사업의 큰 테두리와 국고지원 등 재원조달의 기본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발사업비의 대부분을 충당할 민간자본 확보가 사업 실현의 가늠자로 떠올랐다.

◇문화예술 중심 광주=광주시의 2011년까지의 관광개발 비전과 목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위상에 어울리는 문화환경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한 국제도시 창출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광주는 관광 자원의 특성 및 교통접근성,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해 6개 권역(문화예술·신도심·도시위락·생태체험·전통문화·역사휴양 관광권)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문화예술관광권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중외문화예술관광지역 등을 포함하며, 상무 신도심과 첨단지구는 신도심 관광권으로 구분돼 개발된다. 어등산과 우치공원지역은 도시위락관광권으로 개발되며, 황룡강과 왕동저수지 등은 생태체험장으로, 서창과 대촌·양림동은 전통문화관광권으로, 무등산과 시가문화권은 역사휴양관광권으로 각각 특화된다.

특히 4대 전략산업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영상문화 복합관,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사직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여기에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컨벤션뷰로의 설치 등을 더해 서남권 거점관광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계획은 사업규모와 재원 소요 등을 감안해 2007~2008년·2009~2011년 등 2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총 투자비는 1조2천800억원(국비 5천777억원, 지방비 2천347억원, 민자 4천6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에다 특히 관광체육부문 투자재원이 극히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예산확보가 최대의 걸림돌이며 관광산업기반 확충 등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해양생태관광 보고 전남=서해와 남해를 끼고 다도해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전남 관광개발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해양문화와 생태관광'이다. 독특한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다른 지역과 크게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개발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다도해 해양문화와 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된다.

특히 바다와 섬, 해안이라는 지리적 비교우위를 최대한 강조하고 역사문화와 전통음식이라는 지역특성을 곁들여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게 된다.

4차 계획은 제3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의 관광개발 대상 37곳 가운데 여수 사도·낭도와 나주호 등 28곳은 기존과 같고 담양호, 지리산온천, 도곡온천, 우수영, 아리랑마을 등은 면적을 변경시켰다. 또 관광지 지정 이후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투자실적이 전혀 없거나 여건이 변화된 완도 청해진, 나주 지석강 등은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권역을 해제했다.

역시 이번 계획에 필요한 사업비 4조7천340억원 가운데 76%에 이르는 민간자본 3조 6천5억원의 확보여부가 사업 성패의 최대 관건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관광 권역계획 주요내용

광 주
- 아시아의 문화예술관광 중심도시
- 아시아문화 전당지구 관광 자원화 사업 등 4개 전략 개발사업

전 남
- 21세기 동북아 다도해 해양 문화생태 관광의 중심지
- 증도갯벌휴양타운 등 5개 관광지 개발·외달도관광휴양지 등 10개 전략개발사업

與 정세균 체제 출범

열린우리 全大서 당 의장으로 선출…김성곤 등 4명 최고위원

열린우리당은 14일 오후 시내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정기 전당대회를 열어 대통합신당 추진을 결의하고 합의추대된 정세균 의원<사진>을 당 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원 31명의 탈당으로 사실상의 분당 상황에 처한 우리당이 이날 정세균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내분을 수습하고 정계개편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초 의결 정족수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이날 전대에는 재적 대의원 9천157명 가운데 과반인 6천617명(72.3%)이 참석했다.

우리당은 이날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정세균 의원을 당 의장으로, 김성곤 김영춘 원혜영 윤원호 의원 등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우리당은 또 전대에서 평화개혁 미래세력의 대통합신당 추진을 결의했고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 신당 추진의 방법과 절차 등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다. 또 전대 이후 4개월간 중앙위 구성을 유예하는 동시에 당 지도부-국회의원-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통합수임기구의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했고 기간당원제 폐지에 관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신임 정세균 의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제 어깨는 마치 온 세상을 올려놓은 듯 무겁다"며 "지금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며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목표점은 대통합신당을 통한 대선 승리"라고 말했다.

새 지도부는 당의 조기 안정을 위해 곧바로 후속 당직 인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송영길 의원, 기획위원장에 오영식 의원, 당 의장 비서실장에 문병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세균의장 프로필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열린우리당을 이끌 새 당 의장으로 합의추대된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출신 3선 의원.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까지 지낸 뒤 1995년 정계에 입문했으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거치는 등 정책 사이드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작년 1월 당·청 갈등의 상황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1·2 개각 파문'에 휩쓸려 잠시 당내 위상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곧 제 자리를 잡았고 복잡한 당내 계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의장에 합의추대됐다. 온화한 외모에 대인관계가 원만해 당내에서는 '미스터 스마일'로 불린다. 부부인 최혜경(54)씨와 사이에 1남1녀.

▲전북 장수(56) ▲고려대 법대 ▲15.16.17대 의원 ▲연청 중앙회장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의장 ▲산자부 장관

강운태 전 의원을 지지하는 광주·전남권 자문교수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참정치 구현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정책개발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교수 234명 강운태 지지 선언

정책자문팀 구성 활동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 234명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강운태 전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지역 대학교수들의 대규모 지지 선언으로 호남을 모태로 지지세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강 전 의원측의 계획에 탄력이 붙었다.

14일 강 전 의원이 이끄는 정치지향적 봉사단체인 '빛나는 대한민국연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대 김영태 교수와 조선대 김안규 교수, 호남대 차준섭 교수, 순천대 김재영 교수 등 광주·전남지역 20개 대학 교수 234명이 강 전 의원 지지를 선언하고, 정책자문팀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정책자문 교수위원회' 창립 총회를 갖고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어느 곳에서도 도약하지 못하고 세계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통합과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쉽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생봉사를 토대로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자하는 뜻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시대적 화두"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에 동참하고, 창조하는 사회, 책임지는 사회, 봉사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인재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강 전 의원은 "교수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 사회가 나아가야할 시대정신을 밝혀줬다"며 "봉사를 화두로 한 새로운 시대정신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완성 모든 역량 쏟겠다"

박흥석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일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에 선출된 박흥석 광주방송 사장은 "2006년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기간 중 지역혁신체계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광·전혁신협의회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듯이 지역혁신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선적으로 광주와 전남의 미래 청사진이랄 수 있는 나주 공동혁신도시 완성에 혁신협의회의 모든 역량을 쏟고, 세계 여수박람회 유치와 F1대회, 서남해안권 개발계획 등이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광주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국내는 물론 아시아적으로도 문화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장은 "지역 인재 양성 없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는 만큼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부문을 집중 육성해 전국 대학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시·도가 모든 사안에 대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한편,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 발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